

1분기 한국 경제성장 '메르스' 때로 추락

GDP성장률 0.4%에 그쳐... 민간소비는 급격히 위축

중국 등 신흥국 경제불안 · 지속적 수출부진 영향

올해 첫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났다. 성장세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나타내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2분기 수준(0.4%)에 그친 것이다.

이는 소비가 급감하는 이른바 '소비절벽'이 현실로 나타난 데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불안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지속된 수출 부진의 영향이 컸다.

특히 소비는 크게 악화됐다. 1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대비 0.3% 감소하면서 메르스 여파를 겪은 지난해 2분기(-0.1%)보다도 나빠졌다. 지난해 3분기(1.1%), 4분기(1.4%)에 1%대의 성장률을 보인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추진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정책의 약점이 떨어지면서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민간소비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호조세를 보인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5.9% 감소하며 지난 2014년 1분기(-1.1%) 이후 2년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진세가 컸다. 1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0.2%에 그치며 2014년 4분기 이후 5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설비투자 감소와 제조업 부진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한은은 2분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올해 2.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나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한 소비개선 등 일부 경기지표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서도.

실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던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최근 반등세를 나타냈다.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88로 전월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심리도 꿈틀대는 모습이다. 3월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등한 소비심리가 구조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대두된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우려가 크다.

수출 부진세도 여전하다. 1분기 수출은 -

1.7%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 2.1% 성장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여기에 4월1~10일까지 수출실적은 105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7% 감소하며 16개월 연속 감소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대다수의 연구기관들은 올해 2%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2.6%)과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6%), IC경제연구원(2.4%) 등은 2% 중후반대의 성장률

을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7%로 0.5%p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정부가 1분기 당초 계획보다 재정을 늘려 집행했는데도 성장률이 예상보다 악화된 만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올 1분기 계획보다 14조3000억원의 재정을 초과 지출했다.

/인진수 기자



각 초소 한번에 통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국방부(장관 한민구)가 협력을 통해 열린 제1회 창조국방 ICT기술 정비 전시회에서 군인들이 각 초소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고속 지령대 콘솔을 시연하고 있다.

구조조정 업종 실업자 지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 · 재취업 지원

정부는 구조조정 진행에서 실업자 발생은 일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6일 입종률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노동법 개정 촉구 등의 실업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 구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하도급 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선

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지역 자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1일 상한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검토 대상이다.

또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을 깎고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구직자 통장대포통장으로 사용 등

#. 구직 활동을 하던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해 환불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사측은 A씨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고객의 환불 요청시 해당 금액을 고객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알고 보니 쇼핑몰 운영자는 사기범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A씨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뒤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A씨가 돈을 이체하게 한 것이다. 환불업무에 채용된 줄 알았던 A씨는 출처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됐다.

최근 A씨 사례처럼 구직자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과다조회한 탓에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됐다면 서 등록 해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적절히 위한 특별대책'이라는 팝업을 띄워 파밍 사기를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파밍 사기는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가짜 사이트로 연결,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빼돌리는 범죄 수법이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돈을 내서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 인식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진수 기자

주택금융공사, 5월 보증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증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증자리론'과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는 '플러스 보증자리론' 금리는 연 2.70%(10년)~2.95%(30년)를 유지하게 됐다.

'아깁-보증자리론'은 연 2.60%(10년)~2.85%(3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의 안심주머니 앱을 활용시 최저 2.58%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25일 출시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증자리론을 이용해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고 보증자리론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최대 연 0.3%p 낮아진다.

우대받는 이자는 연금 전환시 전환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자리론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장점과 소액 공제 한도가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디지털파이코리아, 이란 위성통신시장 진출

국내 벤처기업이 이란에 75억달러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파이코리아는 'International Commun Company(ICC)'와 다음 달 2일 이란 현지에서 '디지털파이 스마트 솔루션 및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공급'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ICC는 이란 산업광산은행(Industry of Mine Bank)과 IAD ERTEBAT BENOLMELAL Co가 국가 민간 통신망과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해 설립한 컨소시엄이다.

디지털파이코리아에 따르면 ICC는 디지털파이코리아의 디지털파이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해 오는 2020년까지 이란 1만8000여개 지역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파이코리아는 다음달 2일 ICC와 MOU를 체결한 후 3개월간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본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장비도입과 설치 운영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한반기 디지털파이코리아 대표는 "오는 29일 현지로 출국할 계획"이라며 "이란 국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와 함께 국가재난망 구축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앞서 방한한 이란 내무부 차관로부터 국가재난망 구축사업 참여를 요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